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협력으로 교육발전 이루자



설 동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

지식기반사회의 본격적인 전개와 더불어 지식 생산과 인재 양성의 중심에서 있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학 혁신에 대한 목소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는 외국 명문대학으로의 진학 열풍과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등 대학교육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쟁체제는 각 대학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학생선발제도를 개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각 대학은 우수 학생의 유치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대학이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학에 대한 통제는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서 책무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조그마한 변화에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접점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대학입시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도 함께 요구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호연계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대학과 초·중·고교가 정상적인 초·중등교육의 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한 줄 세우기 교육’으로 이미 능력이 완성된 학생보다는 ‘여러 줄 세우기 교육’으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건학이념과 학교문화에 걸맞은 인재상을 제시하는 입학전형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수능 고득점자’ 중심의 우수 학생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포괄하는 우수 학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형 자료의 개발 및 활용, 전형방법의 도입에 의해 초·중등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과연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전형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3년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고, 대학은 이러한 학생부를 신뢰하여 각 대학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입전형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9일 대학총학장과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가진 바 있지만, 좀 더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더욱 다양화되고, 학교교육 역시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화, 맞춤형 교육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국교육의 비전과 발전적 방향을 선언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할 자리가 요구된다고 본다.

서로 밀접한 연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고등학교와 대학인데, 그동안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각자의 일에만 바빴지 서로 마음을 열고 자리를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등 전국적·지역적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하겠다.

초·중·고교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찬 대학의 예비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고, 대학에서도 우리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협력을 통해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초·중·고교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찬 대학의 예비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고, 대학에서도 우리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담아내는 요체가 되어야 하듯이 대학도 상아탑 속의 대학이 아니라 국가,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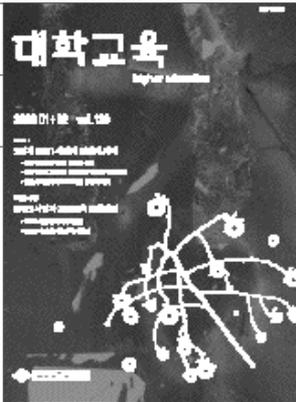
초·중·고교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창의적 민주 시민 육성의 장이며, 대학은 인간의 잠재력이 형성되고 변화되며 우리 문화의 지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신지식이 생산되는 한 차원 높은 학습의 장이다. 따라서 대학들과 일선 초·중등학교들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학입시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사안들을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우리 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교육**

실동근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동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용호초등학교, 좌천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민선3대 부산광역시교육위원, 제12대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제13대 부산광역시교육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인터넷 수능 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3년에 체육훈장 거상장 650호를 수상하였다.

투·고·안·내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글,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대학교육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보 내
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개발부
전화 : 783-3891 팩스 : 783-3645 전자 우편 : infor@kcue.or.kr